

지역 소식통

정읍시, 추석 앞두고 축산물 위생 점검 강화

정읍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명절을 대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명절 축산물 위생 감시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축산물 보관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및 영업장 위생적합 여부 △보존·유통기준 및 일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축산물 제조·유통·판매업소 398개소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29개소다.

위생관리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폭염 대응 생수 쉼터 냉방비 추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양심냉장고 운영을 연장하고, 무더위쉼터(경로당)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폭염대책 강화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폭염대책 강화에 따라 관내 무더위쉼터 642개소 중 관공서를 제외한 경로당(602개소) 1곳당 냉방비 1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무더위쉼터 운영시간이 늘어난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늘어나자 추가 인명 피해 등을 막고자 재난관리기금 투입을 결정했다.

또한, 폭염대응 생수지원으로 당초 18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양심냉장고가 25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십덕읍 고창군수는 "폭염대응 추가 지원을 통해 남은 폭염기간 동안 군민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자연을 담은 고창해풍고추’

제28회 고창해풍고추축제, 농산물유통센터 일원서 23일부터 3일간 열어

고창군이 제28회 고창해풍고추축제를 23~25일(3일간) 고창읍 고창군 농산물유통센터 일원에서 맛있게 매운 맛! 자연을 담은 고창해풍고추를 주제로 연다.

고창해풍고추는 미세랄과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고창 환토와 청정 갯벌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병해충에 강하고 표피가 두꺼우며 특유의 매콤한 맛과 향을 지니고 있다. 예로부터 김장김치에 사용하는 최고의 고추로 명성이 있는 고추다.

축제기간 동안 고창군 관내 고추재배 농가와 단체가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열어, 건고추와 고춧가루를 10%

내외 한정 할인 판매한다. 고품질 고추를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또한 고창해풍고추를 소재로 관광객



체험행사(해풍고추 김치만들기, 해풍고추장 만들기)와 더불어 고추감쪽경매, 우리동네 가수왕! 선발대회, 다양한 공연 등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십덕읍 고창군수는 "고창해풍고추축제에서 해풍고추와 고창농특산품을 소비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화합의 장을 만들어, 우리 지역 농·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일자리센터와 부안성모병원, 부안효양병원 관계자들은 지난 21일 부안어울림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협업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료분야 일자리 협업 다짐’

부안군일자리센터 · 성모병원 · 효양병원,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

부안군일자리센터(센터장 최연관)와 부안성모병원(병원장 이재훈), 부안효양병원(병원장 천창식) 관계자들은 지난 21일 부안어울림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협업하기로 뜻을 모았다.

부안성모병원과 부안효양병원은 향후 채용 요인 발생 시 부안군일자리센터의 채용대행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인력 채용의 기회가 마련됨은 물론 구직자는 면접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부안군 의료기관 최초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소속 직원

대상 가족친화팀 체험 프로그램 공동 운영 방안도 협의했다.

천창식 부안효양병원장은 "부안군 일자리센터, 부안성모병원과 함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부안군 의료기관으로는 최초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돼 큰 기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일자리센터 구인·구직 상담은 전화(☎ 063-584-8032~4)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부안군, 효성중공업 · 지역업체 4곳 등 7개 사업체 컨소시엄 구성

부안군은 새만금 부안군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효성중공업을 대표사로 7개 사업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100MW씩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 권리를 부여받은 4개 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김제시,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은 배분된 100MW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고 발전소 건설 후 20년간 발전소를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군은 세 차례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결과 사업성 하락 등으로 유찰했으나 지난 6월 제4차 공고를 진행해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

다. 군은 앞으로 협상단을 구성해 효성중공업 컨소시엄과 협상을 통해 사업제안서를 보완하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 조건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발전 이익의 지역 환원과 새만금 사업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며 "이번 공모의 목적이 사업협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시기동, 내년 주민자치사업 최종 선정

정읍시 시기동 주민자치회(회장 임장훈)는 지난 19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이학수 시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2025년 주민자치사업 안건을 상정하고 최종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총회는 개회선언으로 시작해 주민자치회 운영경과 보고, 2025년 주민자치사업 안건 상정, 현장투표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5월에는 어르신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정가족 사업이 선정됐고, 4월부터 9월까지는 매주 1회 행정복지센터에서 1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즐거운 노래교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및 밀반찬 지원을 하는 사랑의 밀반찬 지원사업

이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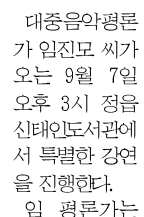
2025년에 진행되는 마을사업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4개의 안건이 상정돼 현장 투표 결과 '주민과 함께 하는 즐거운 노래교실', '찾아가는 어르신 취미생활 및 건강교실 운영', '아름다운 벚꽃길 그림대회' 총 3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 사업들은 예산 확보 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임장훈 회장은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학수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정읍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대중음악평론가 임진모씨, 정읍 신태인서 특별 강연



대중음악평론가 임진모 씨가 오는 9월 7일 오후 3시 정읍 신태인도서관에서 특별한 강연을 진행한다.

임 평론가는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대중음악이 보편화되지 않은 1980년대부터 대중음악평론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비틀스, 롤링스톤스, 카펜터스, 신중현, 산울림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폭발적으로 등장한 시대에 살아왔으며, 그 경험이 그의 인생을 크게 바꿔놓았다고 말한다. 1993년부터 현재까지 MBC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에서 30년 넘게 고정 게스트로 활동 중이며 저서로는 팝 리얼리즘 팝 아티스트(1993), '한국인의 팝송 10'

(2018), '오랜 시간 멋진 유행가 365'(2022) 등이 있다.

이번 강연은 음악을 통한 세대 간의 공존과 현대 사회에서 사랑받는 음악이 가지는 의미를 탐구하는 자리로, 강연전문가 오상익 씨가 함께한다.

관람 신청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담당자(☎ 539-6442)에게 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강연이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